

미국,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보장 니즈 확대

김유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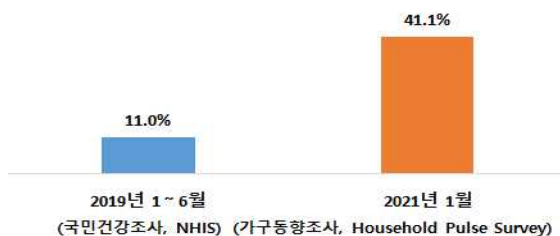
요약

미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근로자의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보험의 부재 등으로 정신건강 보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국 건강보험회사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2020년 미국 성인의 20.8%(5,290만 명)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등이 심리 불안 및 우울 증상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¹⁾
 - 미국 카이저가족재단(KFF)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불안 또는 우울 장애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비율이 크게 상승함²⁾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의 경우 약 75%가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2%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³⁾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⁴⁾

<그림 1> 미국 성인의 불안 또는 우울 장애 증상 비율



자료: KFF(2021. 2)

<그림 2> 미국 고등학생 정신건강 상태 및 자살 행동 변화



자료: CDC(2022. 3)

1) MHA(2022), “2023 The State of Mental Health in America”
 2) KFF(2021. 2), “The Implications of COVID-19 for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3) Harmony Healthcare IT(2022), “State of Gen Z Mental Health 2022”
 4) CDC(2022. 3), “CDC reports on teens’ mental health during pandemic reveal alarming trends”

- 미국 근로자의 80%는 직장 내 정신건강 보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 정신건강에 대한 보장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 61%만이 복리후생의 일부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보장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임⁵⁾
 - 건강보험회사 아플락(Aflac)이 미국 2,000명 이상의 근로자와 1,200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수준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팬데믹이 오랜 시간 지속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는 신체건강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직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일과 삶의 불균형, 이직 고려 등의 문제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주춤하며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는 팬데믹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팬데믹 이전보다 직장 내 정신건강에 대한 보장 수요가 확대됨

- 정신건강 문제는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리가 크게 요구되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고 보험의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심장 질환, 당뇨병 및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모두 가진 사람은 만성질환만 있는 사람보다 의료비용이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미국 정신건강협회(MHA)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의 절반 이상(54.7%)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 보험의 부재 등인 것으로 나타남⁶⁾
 -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의 10.8%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경우 응답자의 57%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건강관리 비용 지출에 대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솟는 의료비용,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경기 침체 등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 건강보험회사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 니즈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함
 - 미국 건강보험회사 아플락(Aflac)은 급성 및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 사용 장애, 우울 장애 및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특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보장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함⁷⁾
 - 건강보험 제공업체 엔테아(Enthea)는 업계 최초로 불안, 우울증, 중독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인 신경정신약물(사이키델릭)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여 고용주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의 일부로 관련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함⁸⁾
 - 미국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및 전문 간호사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으며, 시그나(Cigna) 역시 건강서비스 자회사 에버노스(Evernorth) 사업부문을 확장하여 크게 증가한 정신건강 보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⁹⁾

5) Aflac(2022.10), "2021 Aflac WorkForces Report"

6) MHA(2022), "2023 The State of Mental Health in America"

7) CISION(2022. 5. 2), "Aflac enhances Group Critical Illness Insurance to include serious mental illnesses and infectious diseases like COVID-19"

8) Forbes(2022. 12. 6), "Insurance Provider Enthea Offering Psychedelic Therapy Coverage As An Employee Benefit"

9) Forbes(2022. 12. 1), "As Mental Health Crisis Grows, So Do Health Insurer Behavioral Health Provider Networks"